

# “광주에 공공의료원 꼭 필요...정부가 설립 뒷받침 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치권에 있을 때 얻은 별명은 '미스터 스마일'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처럼 미소를 잃지 않고 합리적으로 일을 풀어 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은 정 총리의 얼굴에서는 특유의 온화한 미소보다는 이마에 깊은 주름살이 새겨진 엄중한 모습이 더 자주 보인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저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를 독려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료계 파업 사태 수습과 민생 경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그의 발걸음은 좀처럼 쉬 틈이 없다.

정 총리는 자기 대선주자라도 꼽히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어떻게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를 수습해 나갈 것인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일보는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 9층 국무총리 접견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코로나19 사태 수습 방안과 지역 현안에 대해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면 돈을 풀어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막으면서 시장에 풀린 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린 것 같다. 과거 우리 주식시장이 외국인들에 의해 좌지우지됐던 측면도 있다. 또 외국인 자본도 높다. 내국인의 시장경쟁력이 커지는 계기가 되면 이견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지.

▲정부가 부동산 관련, 두 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투기 수요를 억누르고 공급을 늘리는 게 중심이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이를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문제는 안정이 될 것이다. 제도 개선은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조금 걸린다.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실해야 한다. 국민 신뢰가 서면 부동산 투기꾼이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다. 투기 세력을 배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번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그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광주에 공공의료원이 없는데 정부 입장은.

▲공공의료 확충은 꼭 필요하다. 지자체가 그런 노력을 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힘을 보태주는 게 좋다. 광주시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건의했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광주에 공공의료원) 있어야 한다. 진주의료원 없던 것 가지고 지금 다들 탄식하고 있지 않나. 의료계 파업으로 의대 정원 확충 등은 현재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의료계와 소통을 하면서 꼭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적절한 절차를 거칠 것이며, 의료계와도 원만하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이다.



-취임 직후 꾸준히 목요일대화를 통해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진행해오고 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목요일대화는 우리 사회의 현안과 갈등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사회적 대화모델이다. 그동안 현 시대 최대 이슈인 코로나19가 야기할 사회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았다. 각계 전문가와 노사대표, 청년세대 및 4050세대를 만나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제안해주신 주요 의견과 아이디어는 정책과제화하고 있다. 앞으로 목요일대화를 여야 정치권, 지방정부 등과 함께 갈등현안을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실질적인 '협치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광주·전남의 현안 사업 중 하나가 흑산공항 건설이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흑산 공항은 성공했다면 좋겠다. 지역에서 열심히 호응해야 한다. 억지로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위원회 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해서 빨리 성사됐으면 좋겠다.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여행은 못 간다. 이번 기회에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면 더 좋겠다.

-호남에 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 요구가 있다. 또 한전공대의 차질없는 개교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로서는 (방사광가속기 재추진) 말이 되지 않는다.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새로운 수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힘을 낭비하면 안된다. 한전공대가 설립되고 산업이 발전해 가속기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니 그 때 유지하는 게 낫다. 한전공대는 차질없이 개교한다. 개교 일자가 정해진 것이다. 그대로 실행되어야 한다.

-광주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는데 중점특화기업에 대한 법외세 감면 가능성은 있는가.

▲그 제도는 광주에 해당하는 제도가 아니라 낙후지역에 해당한다. 광주는 낙후지역이 아니다. 현재 광주는 광주형일자리 잘 추진하고 있다. 광주형일자리가 잘되면 다른 산업도 올 수 있다.

-지역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광주·전남은 민주화의 성지라는 자부심이 있는 곳이다. 여기에 기업 유치와 함께 산업 발전도 되고 풍부한 문화적 토양과 함께 넉넉한 삶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세균의 이름을 걸고 뒷받침하겠다.

/정리·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재난지원금, 두텁게 보호하는게 옳고 넓은 것보다 낫다 경제위기 탈출 국면서 광화문 집회로 물거품 돼 원통 투기세력 억누르고 공급 확대...부동산 곧 안정될 것 흑산공항 건설, 지방·중앙정부 협력해 성사시켜야

### 대담 = 임동욱 선임기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하고 있다. 언제쯤 진정될 것으로 보는지.

▲그동안 코로나19 예측한 게 하나도 안 맞더라. 전문가 예측도 안 맞다. 결국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나 잘 하느냐, 방역 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있다. 희망을 이야기한다면 이번 주부터 안정화로 가지 않을까 본다. 재확산의 결정적 요인은 전광훈 목사와 광화문 집회다. 이로 인해 전국으로 퍼졌다. 정작 (코로나 19 확산을 촉발한) 그분들은 멀쩡하고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나라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조사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진단 검사비, 확진자 치료비도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 그런 게 다 국민세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동선을 의도적으로 감추는 등 코로나19 확산의 명백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매사 법과 제도에 따라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감정적으로 할 수는 없다. 속상한 걸로 치면 말 할 수도 없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 그분들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권도 청구하려고 한다. 신상공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대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민에게 주는 것과 일부에게 지급하는 것은) 입장 일단이 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코로나 19 때문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정부가 지원한다는 의미가 크다. 하지만 지원은 일정하다. 이걸 어디에 쓰는지 중요하며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는 게 '얇고 넓게' 하는 것보다 낫다. 제한적인 게 더 효과적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정 여력은 충분한가.

▲국가의 존재는 국민 보호가 1차적 목표다. '살'독의 싹을 퍼서 나눠주면 좋겠지만 싹속에 살이 없으면 싹을 팔아서라도 나눠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지금은 빛을 내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민생경제가 나아질 것인가.

▲경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앞서 1차 재난지원금이 나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뒤 소비가 상당히 늘어났다. 투자도 어느 정도 되고 수출도 잘 되고, 괜찮았다. 이에 광복절 휴가도 늘리고, 'V자형' (경제 회복)을 만들려고 했는데 광화문 집회 탓에 물거품이 돼서 원통하다. 국민의 협조를 받아서 방역에 성공하는 게 (민생경제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방역이 경제다.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 접견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다.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http://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 인생의 기둥“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